

IPIC, 현대정유에 9억달러 금융지원

현대정유의 1대 주주인 아랍계 투자회사 IPIC가 현대정유에 9억달러(약 1조1700억원)의 금융지원을 약속했다.

현대정유는 IPIC가 약 4억달러의 공급자 신용과 5억달러의 무역금융 등 9억달러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현대정유 대주주와 합의했다고 3월29일 밝혔다.

공급자신용은 IPIC가 현대정유의 원유 수입 담보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고, 무역금융은 은행에 대해 보증을 서 주는 것이다.

이에 따라 현대정유는 지난 2년간 5000억원의 당기순손실로 인한 대외신인도 하락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게 됐다.

현대정유의 대주주인 IPIC는 아랍에미레이트 정부가 전액 출자한 석유 전문 투자회사로 1999년 현대정유에 약 6127억원을 투자해 지분 50%를 인수했다.

현대정유의 나머지 지분은 현대중공업이 32%, 현대자동차 인천제철 등 현대 계열사가 18%를 보유하고 있다.

<Chemical Daily News 2002/04/01>